

2020 가을호 (Vol. 45)

서신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계간 서신원 2020년 3(가을)호, 통권 45호

발행인 현유광 | 편집인 장석조 | 창간일 2010년 9월 9일 | 발행일 2020년 9월 7일

발행처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가길 45-1

전화 02-845-7711 | 홈페이지 <http://www.sb.ac.kr>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총장 **현유광**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외치게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양망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지난 8월31일(월) 2020학년도 제2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신학 석박사과정을 필두로 목회학 석사, 사회복지 그리고 상담 전공 석박사 과정이 연이어 개강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면수업은 가능하면 자제하고 줌(Zoom)을 사용하여 비대면수업으로 학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회학석사(MDiv)과정 개강 경건회가 9월1일(화)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40:9-11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사람이나 사회나 국가로부터 도움이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픔을 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믿었던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들로부터 실망을 맞볼 때도 왕왕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비리나 범죄가 드러날 때에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지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2:22)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지혜로운 통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힘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8만5천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침공한 앗수르의 산헤립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물리쳤습니다. 병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여 15년의 생명을 얻

장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절들에게 자기의 영화를 자랑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초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말미암은 암담한 미래의 일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장래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온의 주민들을 위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는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지난 6월부터 오늘(9/3)에 이르기까지의 3개월은 모두가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사태와 50여 일간의 장마 그리고 연속으로 불어 닥치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던 나날이었습니다.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문제 또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공평과 공의가 시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외치게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양망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라고 소리 높여 외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맑음교회

담임 김영대 목사

대전시 서구 구봉산북로 304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304에서 복음을 전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주소가 말해 주듯이 교회 뒤로는 대전의 자랑인 구봉산의 일곱 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서 아늑함과 포근함을 함께 선물로 받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1951년 3월 민족의 비극 6.25전쟁이 한창일 때 1.4후퇴로 이주해온 성도 몇 명의 예배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전교회'의 이름으로 대전 시내에서 복음사역에 힘쓰던 중 재개발로 인해 지금의 원로목사이신 윤정현목사의 주도하에 현재의 위치로 이주하면서 교회명도 '해맑음교회'로 개명하여 복음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오직 한길, 복음사역에만 힘쓰면서 영혼구원에 매진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년 2021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은혜와 도약의 원년을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70년의 세월 속에 오랜 성도들의 깊은 교우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이 성도들의 단합과 합심의 연대를 이루게도 하지만 또한 새로 오시는 성도의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장벽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성도 한 명 한 명이 더욱 겸손히 낮아지고 묵묵한 섬김에 온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 인근의 개발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유동인구가 조금씩 늘면서 전도되는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새가족 성경공부와 기존 성도들의 영적 재정비를 위한 '제자훈련'이 체계적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곳에 부름을 받고 사역 한지 3년차 되는 올해는 '제자되어 제자 삼는 교회'의 기치 아래 제자훈련에 더욱 매진하여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양성하고자 했으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잠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들이 훈련 받은 대로 성경과 기도 훈련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훈련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훈련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리적 위치상 교단의 중심에서 섬기기는 어려워도 교단의 든든한 허리가 되어, 중부지역과 남쪽 지역까지 큰 힘이 되고자 교단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교단의 자부심인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며 기도와 후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대로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짙은 친밀감으로 그러면서도 섬세하고도 과감한 섬김의 손길로 모든 성도를 보듬고 교회를 살피며 정성으로 섬겨주시는 해맑음 성도들의 따뜻함에 가슴이 저밀도록 감사가 흘러나오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때, 참 행복한 해맑음의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랜 교회의 전통을 아름답게 계승하고 지역과 교단을 잘 섬기는 든든한 교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편에서 진리편으로



김일수 목사(동신교회 담임)
동부 노회, 순장학원 이사

중국 베이징에 갔을 때 짹 시장을 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신발, 가방, 시계, 옷, 전자제품, 액세서리 등의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정말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짹’은 정품이 아닌 모조품을 일컫는 말인데, 이렇게 ‘가짜’라는 말이 차츰 발달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짜가’로, ‘짹’으로, ‘거짓’으로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한창 급상승할 때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생겨 품귀 현상이 있었다. 그때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들 중 가짜 뉴스가 남발되었다. 헤어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으로 소독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세탁하면 반복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천 마스크나 1회용은 위험하다. 또 코로나19에 걸리면 소금물로 소독하라.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물리칠 수 있다. 코로나

19가 열에 약해서 더운 여름이 오면 코로나19가 사라진다. 이와 같이 가짜 뉴스가 가득했다.

이를 접하는 사람들마다 긍정 또는 부정, 박수를 치거나 분노 등으로 반응을 한다. 정말 유익하고 알찬 정보, 기사, 사건 등을 보면 함께 공감하면서 때로는 가짜로 인해 실수, 실망, 손해, 서로의 신뢰성과 관계 형성이 깨어지는 등이 발생되고 있다.

왜, 가짜 뉴스가 발생할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나의 개인적인 판단은, 첫째, 자신의 적과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닐까. 둘째, 자신의 주장을 더 확고히 하고픈 욕심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편 가르기 위함이 아닐까? 판단해 본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뜻과 맘이 같이 않으면 무관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대상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이들을 없애려는 태도에서 발생되지 않는가 한다. 사탄들이 이와 같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벤전5:8)라고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들을, 기독교를 없애거나 무력하게 하거나 무너뜨리려거나 자기 수하에 두려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들의 세상이 오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신을 더 확고히 하고픈 마음에서 일 것이다. 인기, 자기 자리 지키기, 자신을 높이고 싶고 자신의 이미지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자신은 아직 그 선에 다다르지 않았지만 좀 거짓을 추가해 그런 존재로 만들려는 모습과 같다. 이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

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마23:27)라고 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화려하고 진짜 같으나 속은, 실상은 썩고 오염과 악취 냄새가 가득한 죽음인 가짜인 것이다.

셋째로, 편 가르기 위함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옹호하여 주고 같이 가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으면 자신이 매우 큰 존재로 착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날은 수치와 다수로 판단하여 적은 수치, 작은 무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서로의 편을 가르고 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짜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편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거짓말로 속여 유혹하고 가짜 복음을 통하여 자칭 예수, 선지자, 사도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흐리게 만들어 악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이 글을 읽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를 잘 구분해야만 내가 바로 설 수 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릇된 사상과 심정을 갖게 되고, 악한 바이러스에 접촉되어 자료와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받거나, 심신이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잘 구별하여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전문성을 키워야 하겠다.

가짜 뉴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구별하기 위해선 많은 정보와 교훈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여 사실 여부를 파악하거나 그 현장에 가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짜 뉴스, 악 글, 소식, 짹, 가짜 복음 등에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선 내 자신을 전문화 하여 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영적인 삶도 이와 유사하다. 이단, 사이비 종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자칭 예수 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성경 딤후 4:1-5를 보면, 바울 사도는 후일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1절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는 전제로 보아 성령에 의해 받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미혹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함께 하였고, 복음과 말씀을 배우며 함께 한 자였는데, 미혹을 받아 그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화인맞은 존재들이라고 한다. 요8:44에서 주님께서는 사탄을 진리가 없고, 욕심대로 행하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다. 바로 사탄, 악의 세상은 '가짜', '짜퉁'이라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 미혹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고 나를 거룩히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 5절의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지금의 어려움과 비탄과 견디기 힘든 때를 맞이하여 우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맞서 싸우고 인내하며 가짜편에서 진리편에서 있어야 하겠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을 더 높이고 자기편을 많이 만들고 우리를 제거하고자 함이다. 우리는 그런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잘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단이나 불건전한 교훈을 경계하기 위하여, 잘못된 거짓교훈과 거짓말, 가짜 복음과 가짜 뉴스와 같은 악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으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에 힘써야 한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세상의 가짜에 속지 마세요. 가짜에 흥분하지 마세요. 이단과 사탄의 속임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란다. 오직 구원이신 예수님, 그의 십자가만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진리편에서 서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한다.

41-42회 회장을 마치면서

김예자 권사(루디아 장학회 회장)



살롱~ 었그제 루디아 장학회를 맡은 것 같은데,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임원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41회 루디아장학회 수련회를 기점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다시 들어야 할 복음" (롬1:8-17)이란 제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이근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루디아 장학회가 더 많은 곳에 불쏘시개(kindling)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에 43-44회 회장직을 맡으신 조순애 권사님과 임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라 생각합니다. 특히 장학회 수련회를 할 수 없는 현실에 각 교회 권사님들이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수련회가 다시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과 순장교단 교회들이 더욱 발전할 것을 믿습니다.



루디아 장학회

조순애 권사(안천교회)

루디아 장학회 회장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인사드립니다. 루디아 장학회 43-44회기 회장을 맡은 조순애 권사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들로 마음이 많이 움츠러지는 8월 끝자락에, 2020년도 2학기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루디아 장학회 회장단이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를 방문 하였습니다. 현유광 총장님과 이사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님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그 자리에서 최순봉 교수님께서 학교 근황을 말씀해 주실 때에 몰랐던 학교 사정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서신원을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루디아 장학회는 회원들의 신앙 향상과 교단 신학교인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도들을 장학금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교단 내 권

사님들과 여전도사님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루디아 장학회가 그 목적에 부합하여 힘써 일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안천교회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임역원들이 구성되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맡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맡겨진 직분이라 걱정이 앞서지만, 모든 임역원들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줄로 믿고, 다시한번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희창 원우 목회학과정(MDiv)
2020년 원우회장

원우회를 섬기면서



먼저 원우회장에 취임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주간 원우회장을 섬기는 이희창 전도사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라”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저희 원우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셨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사랑, 교회 사랑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동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우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대해 느낀 점 또는 학교에 기대하시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1938년 조선장로교회 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불법가결했을 때에 이를 거부한 전통이 있습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본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M. Div의 전환점에서 선배들이나 동기들·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M. Div 선배님들과 동기 및 후배님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원우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원우회장에 취임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4학차 김도형 전도사라 합니다. 먼저는 아직 많이 배우고 조언을 받아야 하는데 원우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세워주신 자리인 만큼 원우회 학생들과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의 많은 조언과 참여, 그리고 많은 관심을 통해 좋은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회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셨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서신원은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모두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덕망과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간과 야간, 특히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의 일과 수업에 많이 쫓겨 소통의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원우회를 넘어서 선배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선후배간의 교류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우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대해 느낀 점 또는 학교에 기대하시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서신원은 크기는 작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와 많은 후원이 있었기에 훌륭한 사역자를 배출하는 학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 가르침에 많은 학생들이 신앙과 신학적으로 매우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3년의 학업계획과 필요한 과목, 도서들을 정리한 지침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학, 신학학,



김도형 원우 목회학과정(MDiv)
2020년 원우회장

역사신학, 조직신학, 선교학, 목회학 등 각 분야의 과정과 공부해야 할 필수적인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M. Div의 전환점에서 선배들이나 동기들·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시행착오가 많았으며 비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전과 같이 출석수업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수업과 예배는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고 전도와 신앙생활에 위축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선교와 예배, 그리고 공부를 잘 풀어낸다면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선 위력적인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서신원을 통한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합니다. 원우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열심히 학업에 전진하시며 더 멋진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학교와 원우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하면서

졸업생 서미정

두려움!
이대로 떠나면
안 되는데...
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3 학년에 올라오면서 밀려온 말씀에 대한 부족함은 졸업이라는 문턱을 바라보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배웠던 지식들이 너무 작은 티끌이 되어 저의 두뇌와 가슴 어느 한 켠에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학교를 떠나면 안 되는데, 이 부족함으로 어떻게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지? 난 아는 게 너무 없는데... 그 두려움은 3학년 내내 저를 사로잡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야만 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3년 전,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한 여름! 아프고 지친 몸을 이끌고 언덕을 올라와 바라 본 신학교는 제게 너무 높은 성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는 '내 몸으로 이 공부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신학 공부하다 죽으면 그게 바로 순교다"라고 하신 어느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무장한 전사의 의지로 바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온전히 이끄셨습니다. 학업과 사역과 가정으로 숨 쉴 틈 없이 바빴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제 몸을 일으켜주셨고,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온전히 은혜의 물결을 따라 쏜살같이 그렇게 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득한 자로, 부족함 가득한 자로 학교의 문을 나섭니다. 학교에 첫 발을 디디던 3년 전의 마음보다 백만 배는 더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성도님들 앞에 더욱 사랑과 겸손으로 엎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자가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자리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저 그리스도의 발아래 엎드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두려움이 저의 평생에 지극히 작은 자의 겸손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작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년 동안 이 부족하고 미련한 자를 긍휼과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풍성한 신학적 지식과 올바른 신앙으로 부족한 저를 가르치고 이끌어주신 우리 교수님들~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소식

<http://lib.sb.ac.kr/>

도서관 홈페이지 지정도서 메뉴 신설 안내

- 도서관 홈페이지 ☞ 이용자서비스 ☞ 강의지원도서 ☞ 학과별 선택

2020-2학기 지정도서 선정

- 도서관 홈페이지 및 지정도서 서가

직원 소개

- 신규 직원 2020.7.1. 발령 / 김병희
- 경력 20년 / 정사서 / 사회복지사

신간도서 안내(8-9월)

교회 하브루타 / 전성수, 이익열 공저

개혁주의 목회 상담학 / 이관직

계시 철학 / 헤르만 바빙크

바울 / 브루스 W. 롱네커 외

바울 서신 석의 방법론 / 토머스 R. 슈라이너

바울 신학 / 제임스 D. G. 던

성서 언어 해석학 / 조안나

예수를 바라보자 / 장흥길

중급 신약성경 헬라이어 문법 / 장성민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 / 헤르만 바빙크

히브리서 산책 / 최승라

변하지 않는 성경적 선교 / 김학유

변화하는 선교 / 데이비드 J. 보쉬

역사서개론 / 빅터 해밀턴

역사서 / 리처드 D. 넬슨

스가랴 / 장세훈

교회정치 문답조례 / J.A.HODGE

NEWS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서신원 제19회 학위수여식



서신원 제19회 학위수여식 대체 모임이 지난 8월 20일(목)에 본교 305 강의실에서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 14일 예정되었던 졸업식이 이 날로 연기되었었다. 코로나19의 갑작스런 확산으로 사진촬영 중심으로 순서가 진행되었다. MDiv, ThM, MA 그리고 PhD 순서로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본교의 상담과정을 위해 수고하신 고성실 교수님의 정년 퇴임을 위로하고 축하하는 순서가 마련되었다.

2020학년도 제2학기 개강



“모든 시작은 어렵다.”라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지난 8월31일(월) 서신원은 2020학년도 제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의 확산, 한달 반이 넘는 오랜 장마, 그리고 연이어 불어닥치는 태풍 속에서 서신원은 새 학기를 개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며 소수의 학생들은 출석수업, 대부분의 학생들은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1일(화)에는 개강 경건회를 주야간 각각 가졌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교수 직원 학생들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경건과 학문에 진보를 나타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NEWS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주간 원우회 임원선출

지난 6월 4일 목요일에 2020년 주간 원우회 임원선출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우회장 : 이희창, **총무** : 김상아

회장선출은 주간 회장 대상자들을 투표로 선출하여 이희창, 김상아 원우가 차례대로 득표하여 다음 1년간 주간 원우회장과 총무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원우회장
이희창

총무
김상아

야간 원우회 차기 임원 선출

할렐루야,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서신원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원우들과 함께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5월 19에 야간 원우회 차기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서서 임원 선출이 순조로웠습니다. 다음 학기가 매우 기대되어집니다. 야간 원우회는 총 3명의 임원으로 운영됩니다. 3명의 임원은 원우 회장, 총무, 회계로 이루어집니다. 차기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우회장 : 김도형 전도사 (3학차)

총무 : 천미숙 전도사 (1학차)

회계 : 정영욱 전도사 (1학차)

위와 같이 선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의 임원들은 2020년 2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임원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원우님들께서 함께 기도해주시고 협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학업과 사역에 협력하는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원우회장
김도형 전도사

총무
천미숙 전도사

회계
정영욱 전도사

기부금 내역

2020.06.01 ~ 2020.08.31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신원사랑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여러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헌금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05분의 개인 후원자와 춘천교회를 포함해서 8교회 그리고 순장연합전도회를 비롯한 5기관이 서신원 사랑 후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020년 남은 4개월 동안 100명의 개인 후원자가 추가로 서신원 사랑 후원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래 정기후원 안내를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후원 월 1구좌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1구좌 = 월 5,000원, 10구좌 = 월 50,000원) 기한은 1년 또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후원해주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070)-7169-4100 손계숙 팀장에게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사이 전화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후원 국민은행 040001-04-16708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농협은행 301-0043-7048-1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계좌로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송금하신 후 (070)-7169-4100으로 후원 목적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개인				교회 및 단체			
강미랑	김선종	박영선	윤석연	장영철	정정희	현운재	대천교회
강미영	김성희	박영심	윤성자	장인성	조경희	황기연	동부노회
강화순	김승희	박예순	이경아	장임순	조영철	황태근	동인교회 권사회
고명성	김영애	박지호	이명순	전계현	차명란	황희자	동천교회
공인애	김윤재	박천수	이석원	전양순	최경림		동천교회 나눔회
구희원	김은태	서상국	이성매	전영희	최근현	교직원	
권태연	김자영	신은주	이세진	전웅현	최손생	박영복	동천교회
권태영	김준모	심은혜	이승훈	전재덕	최수연	손계숙	- 유니게선교회
길기한	김진환	안춘희	이영순	전충현	최영숙	이동영	루디아장학회
김강호	김현숙	안현만	이예찬	정권재	최옥례	이주철	신원예담교회
김광자	나성엽	양영자	이용대	정미경	최주창	장석조	안천교회
김광자	나재근	오미경	이준호	정보원	최택규	장성길	영암교회
김군자	남분식	우윤해	이혜순	정복희	최한이	진민우	춘천교회
김남희	박소순	위용찬	임용태	정선녀	최형중	최순봉	
김병호	박순자	유승인	임진화	정성기	현나영	현유광	
김선성	박순희	유현희	장명분	정은희	현소영		